

# 厥陰病 白虎湯으로 진단된 어지럼증 환자 1례

최운용<sup>1</sup>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7 성남한의원<sup>1</sup>

## A Case of a Patient with Dizziness Diagnosed with Guorem-byeong Baekho-tang

Woon-yong Choi<sup>1\*</sup>

207, Sanseong-dae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sup>1\*</sup>

**Objective** : A Patient complaining of dizziness was diagnosed and treated with the *Shanghan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and was analyzed to report cases

**Methods** : Based on the *Shanghan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we analyzed a case treated with the Baekho-tang and counseling.

**Results** : Baekho-tang showed a rapid improvement in the patient. During the period of 20 days, dizziness were greatly improved.

**Conclusions** : The Baekho-tang, which is not well known yet, can show rapid effect and can be diagnosed frequently through the *Shanghanlun* disease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system.

**Key words** : Dizziness, Baekho-tang, *Shanghanlun* provision.

\* Corresponding author : Woon-Yong Choi. Seong-Nam Korean medical clinic, 207, Sanseong-daero, Sujeong-gu, Seongnam-si, Gyeonggi-do, Korea. E-mail : choiwn382@gmail.com  
 · Received : 2018/12/02- · Revised : 2018/12/21- · Accepted : 2018/12/27

## 서론

『傷寒論』은 最古의 임상 서적으로서, 이곳에 실린 처방들은 후세의 수많은 방제들의 기원이 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아직 그 진의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하며,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는 현재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 등<sup>2)</sup>, 조 등<sup>3)</sup>의 연구들은 『傷寒論』의 응용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여 임상적 결과물들을 보고하였는데, 이 진단체계는 辨病診斷體系라고 불리며, 傷寒醫學의 이름으로서 활용되고 있다.<sup>4)</sup> 특히 조 등<sup>3)</sup>의 연구에서 밝힌 厥陰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본 증례에 있어서도 일관되게 적용되었다.

『傷寒論』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六經이 전변의 형태로 진행된다거나 장티푸스 등의 급성 전염병으로 이해한 상태로 진행한 반면에, 辨病診斷體系에 근거한 연구들은 『傷寒論』의 病 분류들이 전변되는 형식의 연속적 흐름이 아닌 독립적 진단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가설위에 진행되었다. 본 연구 또한 동일한 진단체계를 통한 증례보고이다.

『傷寒論』에 수록된 처방들 중 후대 처방들의 탄생에 영감이 되어준 중요한 처방들이 존재하는데, 白虎湯은 桂枝湯, 小柴胡湯과 더불어 그러한 처방들 중 하나이다.

白虎湯은 知母, 石膏, 粳米, 甘草의 4가지 약재로 구성된 비교적 간단한 처방이며, 이는 후세에 陽毒白虎湯, 地黃白虎湯, 人蔘白虎湯 등과 가감을 통한 白虎湯加味方 등으로

응용되고 있다. 그러나 白虎湯 원방을 활용한 증례 보고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傷寒論』에 수록된 처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白虎湯의 변형이 아닌 처방 원형의 활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본 증례는 이에 의미를 갖는다.

한의학에서는 어지럼증을 현훈(眩暈)이라고 하는데, 임상양상을 구분하여 ‘현(眩)’은 눈과 관련된 비회전성 어지럼을 뜻하며 ‘훈(暈)’은 회전성 어지럼을 의미한다. 어지럼증은 情志所傷, 失血, 勞倦過度, 飲食所傷 등 다양한 병인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sup>5)</sup>

어지럼증과 관련된 임상연구로는 허<sup>6)</sup>의 辨病診斷體系를 사용한 桂支二越婢一湯 사용 증례 보고가 있다. 또한 70명의 환자에게 滋陰健脾湯加味方을 사용한 임상실험연구<sup>7)</sup>가 있으며, 어지럼증 질환에 사용되는 한약의 빈도로는 滋陰健脾湯이 가장 많으며, 半夏白朮天麻湯, 補中益氣湯이 그 뒤를 잇는다고 하였다<sup>8)</sup>.

본 연구에서는 어지럼증을 주소로 한 환자에게 辨厥陰病 350번 조문으로 진단하여, 白虎湯을 20일간 투여하면서 상담 요법을 병행하여 호전시킨 증례를 보고하는 바이다.

##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8년 8월에 래원하여 한약처방과 상담치료를 받은 환자 1명의 진료기록과 면담을 활용하였고, 임상 연구 보고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얻었다.

## 연구 방법

한약치료로는 白虎湯을 복용하였으며 도표(Table 1.)에 출전과 처방구성, 용량, 복용 횟수 등을 정리하였다. CARE guideline(국제증례보고지침)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환자의 주소증과 관련한 병력과 경과 등을 Timeline(연대표)로 도식화하였다. (Figure 1, 2.) 경과와 평가는 질환의 특징과 진료여 건상 환자의 구술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진단은 『傷寒論』을 활용하였으며, 판본 중 最古本이자 원문과 가장 근접하다고 추정되는 康平本 『傷寒論』을 활용하였다.<sup>9)</sup> 특히 사용된 辨病診斷體系는 『黃帝內經』 등 다른 이론을 배제한 채 『傷寒論』의 서술 체계 자체에 근거, 『傷寒論』의 구조와 의도를 훼손하지 않고, 提綱과 條文을 질병의 원인으로 해석하여 진단하는 방식이다.

Table 1. Composition and administration of Baekho-tang

Herbal name	Scientific name	Daily dose(g)
石膏	Gypsum Anemarrhena	48
知母	asphodeloides Bunge	18
甘草	Glycyrrhizae Radix	6
粳米	Oryzae Semen	11

Dried herbs above are dose of one day. The herbs above were boiled with water, and residues were removed. The patient was administered 120cc each, five times a day.

한편, 康平本 『傷寒論』에는 13, 14, 15字行이 등장하는데, 이 중 15字行이 저술되었

다고 추정되는 시기<sup>10)</sup>에는 金文이 유행하였다고 알려진다. 이것이 大篆, 小篆으로 변화하면서 글자의 형태와 뜻이 다양하게 와전된 경우가 많으므로,<sup>11)</sup> 明, 是, 黃 등 提綱과 條文의 글자는 金文을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 증 례

### 1. 환자 기본정보

남성 / 33세 / 177cm / 72kg / 기혼 / 한의사

### 2. 주소증(C/C) : 어지럼증

3. 발병일(O/S) : 2017년 5월 경  
(초진: 2018년 8월)

### 4. 현병력(P/I)

1) 평 노는 느낌이 아니라 초점을 옮길 때 초점이 안 맞으면서 어지럽다.

2) 아찔한 느낌과 비슷하며, 기억이 살짝 끊기는 느낌도 있다.

### 5. 가족력 : 없음

### 6. 과거력

1) 발병 당시 직장에서의 일이 고되긴 하였으나, 어지럼증이 그리 심하지 않아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다.

2)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불화 이후로 주소증이 심화되었다.

**7. 현재 복용중인 약물 : 없음**

**8. 주요 임상증상 :** 면담과 설문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전신적 상황을 파악하였다.

- 1) 食慾 : 입맛이 덜 하다.
- 2) 消化 : 배가 부르면 더 어지럽다.
- 3) 口部 : 입이 잘 마르는 편이다.
- 4) 汗出 : 일을 많이 할 때 어지럼증이 악화된다.
- 5) 大便 : 2-3회/일, 무른 편이다.
- 6) 小便 : 5-7회/낮, 1회/밤
- 7) 寒熱 : 손발이 찬 편이다. 비염이 있다.
- 8) 頭面 : 약들의 부작용이 주로 두통으로 나타나는 편이며, 최근 눈이 무겁다.
- 9) 呼吸 : 일 할 때 숨 찬 느낌이다.
- 10) 胸部 : 걱정은 별로 없는 편이다.
- 11) 腹部 : 별무
- 12) 睡眠 : 별무
- 13) 身體 : 별무
- 14) 性慾 : 별무
- 15) 스트레스 대응 방식 : 스트레스를 감내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편이다.

**9. 진단 및 진단에 대한 평가**

- 1) 최종진단 : 『傷寒論』 厥陰病, 350번 條文, 傷寒, 脉滑而厥者, 裏有熱也, 白虎湯主之
- 2) 진단도구 : 환자와의 면담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위주로 『傷寒論』의 문헌적 서술 체계에 귀납시켰다.
- 3) 진단근거
  - (1) 厥陰病

① 厥陰之爲病 氣上撞心, 心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吐, 下之利不止 : 어지럼증 발병 과정에서 어머니와의 불화가 계속되었고, 해당 과정에서 답답한 상황이 유발되었다. 그 과정에서 비문증과 심장 내려 앉는 느낌이 같이 발생하였고, 식욕이 점차 저하되었다. 또한 주소증과 부증의 병위가 전부 두면부이다. 불화가 생긴 대상에게 상당히 집착하여 골몰하는 편이고, 이것이 주소증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이라고 판단하였다.

**(2) 條文 診斷**

① 傷寒 : 환자의 주소증은 특정한 사건 이후로 발생하게 되었다.

② 脉滑而厥者, 裏有熱也 : 어지럼증의 양상은 초점을 옮길 때 그것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형태였다. 그것이 집중하는 행위에 의해서 더욱 악화되고, 특징적으로 어머니와의 불화가 이를 악화시켰다. 어머니 생각을 하거나 통화를 하게 되면 몸에서 분노와 열이 많이 난다고 하였다.(Table 2)

**10. 치료적 중재**

- 1) 한약 : 白虎湯
- 2) 상담 : 부모님은 자신보다 먼저 죽게 되는 존재이니, 부모님이 변할 가능성이 없는 이상 본인이 그 감성에 대한 몰두에서 벗어나 부모님을 이해하는 쪽으로 생각해야 병이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11. 경과**

- 1) 2018년 9월 5일 (복용 20일 후)

① 빠른 회복을 위하여 통상적인 복용 횟수인 3회보다 많은 5회를 복용하고 있음. 복용 5일 쯤까지는 어지럼증이 심화되었으나 복용 6일 쯤부터는 어지럼증이 절반 정도로 호전되었고, 7일 쯤 되는 날에는 절반 이하로 더욱 호전되었다. 복용 2주 쯤에는 어지럼증이 일 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다.

② 눈앞에 안개가 걷힌 느낌이고, 눈이 밝아진 느낌이다.

③ 복용 초기에는 속이 느긋거리는 느낌이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고 대변 상태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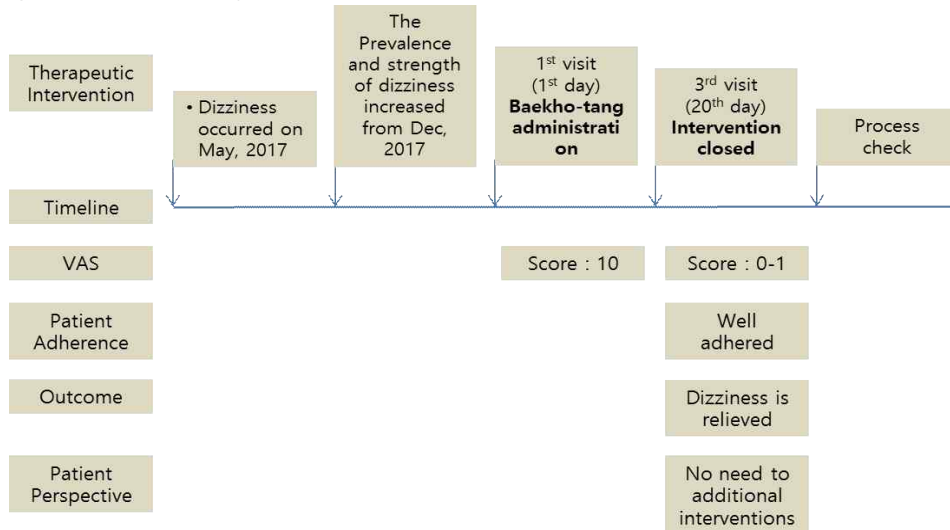
### 12. 치료 관련 주요 연대표

환자의 주소증, 현병력, 진단 요점, 복약 경과 등을 요약하여 치료적 중재, 연대표, 치료적 중재에 대한 순응도, 의사와 환자의 경과에 대한 평가 등의 항목을 도식화 하면 다음(Fig.1)과 같다.

Table 2. The main diagnostic points of this case

Term/ Interpretation	Expression in the provision of <i>Shanghanlun</i>	Related Patient Information
Guorembing	厥陰病	Concentrating on a sophisticated work by straining hands, feet and chest made the chief complaint
Athletic problems : Slip	脉滑而厥	Slipping in muscles as forces are applied
Discord with family	裏有熱	psychological problems and fever caused by discord with family

Figure 1. Timeline analysis of this case



This figure's category such as Therapeutic intervention, Timeline, Patient adherence, Outcome and Patient perspective follow the CARE guideline.

## 고 찰

白虎湯에 대한 국내 임상연구는 총 1건이 검색되었으며<sup>12)</sup>, 뇌졸중 이후 위안통에 대한 치료적 효과에 대하여 보고되었다. 그러나 白虎湯이 기록된 『傷寒論』의 서술구조에 부합하지 않으며, 침치료를 병행한 증례로서 白虎湯 단독 사용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白虎湯은 加減方과 변형된 형태의 처방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증례 보고들은 이러한 처방들을 사용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陽毒白虎湯<sup>13)14)15)</sup>과 地黃白虎湯<sup>16)</sup> 등에 관한 증례 보고는 白虎湯과는 처방 구성이 매우 상이하며, 진단 근거 또한 이제마의 사상의학에 두고 있어서 白虎湯에 대한 연구로 보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다.

본 증례에 사용된 『傷寒論』 辨病診斷體系는 이 등<sup>4)</sup>이 제안하였고, 康平本 『傷寒論』의 15字行을 중심으로, 『黃帝內經』 등 여타 의학 서적의 이론을 빌려 오지 않고, 『傷寒論』 자체의 서술 구조를 통하여 완성된 진단체계 가설이다.<sup>4)9)</sup> 辨病診斷體系의 유효성 확인을 위해 추후 계속된 재현성 확인이 중요하며, 증례 보고가 누적된다면 향후 白虎湯에 대한 가치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 이후에 白虎湯의 재해석과 새로운 영역에의 적용이 보다 정확하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임상연구보고는 『傷寒論』 辨病診

斷體系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환자의 병력을 질병의 서사적 흐름으로 정리하고,<sup>17)</sup> 提綱-條文의 순서로 환자가 병이 오게 된 과정과 원인을 진단하였다. 최종적으로 厥陰病 350번 조문의 ‘傷寒, 脉滑而厥者, 裏有熱也, 白虎湯主之’로 진단된 증례를 통해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의 임상적 적용 방식을 보여주고, 객관성을 담보한 진단체계로서의 가능성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辨病과 提綱. 條文의 내용은 환자의 주소증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병의 악화 인자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본 증례를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환자는 어지럼증을 주소증으로 내원하였다. 환자의 어지럼증은 눈을 중심으로 발생하였는데, 시선을 옮길 때 초점을 잘 잡지 못하여 아찔한 느낌이 드는 것을 특징적으로 호소하였다. 기억이 끊기는 느낌이 든다고도 하였고, 집중하여 강의를 듣게 되면 어지럽다고도 하였다. 또한 이 때문에 길을 걸을 때 많이 부딪힌다고도 하였다. 주소증 악화 이후 비문증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공통적으로 눈과 관련한 증상들이 발생하였다. 이는 厥陰病 撞童이라는 글자와 연관이 깊다. 撞의 童(아이 동)은 辛(문신 칼)과 目, 東으로 구성된 글자이다. 반항하는 힘을 줄이고자 한 쪽 눈을 칼로 도려낸 남자 노예 아이를 그렸는데, 자형이 줄어 현재의 童글자가 되었다.<sup>18)</sup> 눈 쪽의 문제가 생기는 형태로서 임상에서 관찰된다.

환자는 어머니와의 불화가 계속 되면서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었고, 이의 누적으로 해당 주소증이 더욱 심화됨을 인정하였는데, 이는 厥陰病 제강의 氣上撞心에 해당한다. 또한 동시에 해당 감성에 상당히 집중하며 스스로 분노와 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이는 厥의 행위로 인하여 裏有熱이 더욱 악화되기 때문이었다. 즉, 환자는 기본적으로 厥의 행동 양식을 갖고 있었고, 과거에도 문제 상황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을 보여주었다. 어머니와의 불화가 발생하고, 해당 감성에 집중하여 스스로 열을 만들어내는 모습과 그로 인한 답답함의 누적, 눈 증상들의 악화는 厥, 氣上撞心, 裏有熱의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병의 형태는 특징적으로 脉滑의 형태를 띄고 있는데, 大陽病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운동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厥陰病 환자답게 두면부 쪽과 특히 눈 쪽으로의 脉滑 현상을 주소증으로 호소하였다. 滑은 ‘미끄러진다’는 뜻으로서<sup>19)</sup> 임상적으로 보행 시 힘이 빠져 자세가 흐트러지는 형태 혹은 병뚜껑을 돌려서 못 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공통적으로 해당 근육이 힘이 풀려 힘을 제대로 줄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낸다. 厥陰病의 경우 병위가 두면부에 상당히 집중된 모습을 보이며, 답답함의 누적으로 눈에 이상이 생김을 제강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환자에게서 생긴 초점을 잡지 못해 생기는 어지럼증은 초점을 조절하는 안구 내 근육에 脉滑의 운동기적 문제가 온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환자의 주소증이 악화된 핵심적인 원인인 어머니와의 불화는 『傷寒論』에서 裏라는 글자로서 이해할 수 있다. 裏은 里와 衣가 합쳐진 글자로서, ‘속, 내부’의 뜻을 갖고 있다.<sup>20)</sup> 『傷寒論』 15자주의 글자들은 백화가 아닌 문언문의 형태로서 이해가 되고 있으며, 글자 하나하나가 병리적인 원인을 일컫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衣(옷)가 문제가 된다는 것은 스스로가 갖는 위치에 대한 자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즉, 안에서 입는 옷과 그 위치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속옷을 보여줄 수 있는 사이, 혹은 속옷을 공유하는 사이에서의 문제인 것이다. 혈연관계 혹은 배우자와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것인데, 본 증례는 裏에 대한 현재의 가설로서 잘 설명이 되는 증례이다. 환자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어머니가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 불만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화가 많이 났었고, 그 과정에서 눈과 어지럼증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과거에 선배와 크게 다투었을 때에는 오히려 어지럼증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어머니와의 불화가 특징적으로 환자에게 더욱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傷寒論』 辨病診斷體系를 통해 환자를 진단하는 것은 복잡한 인체의 여러 증상들 속에서 병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정황들을 포착하고, 이를 『傷寒論』에 기재된 용어를 통해 정의 내려 진단하는 것이다. 이과정은 위에서 자세히 서술하였다.

환자의 기본적인 素證을 통해 진단을 내리는 여타 한의학적 진단과는 차별성을 두는 방식이다.

본 증례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傷寒論』 조문에 기술된 변병과 제강, 조문의 형태는 발병 과정에서 상당히 유기적이고 입체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傷寒論』의 층차적 서술은 병의 순차적 발생과정을 보여준다고보다는 병인의 구체화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白虎湯을 사용하여 호전된 임상 증례에 대한 후향적 연구로서 상한론의 서술체계에 입각한 진단을 활용하였고, 침 치료를 병행하지 않은, 한약 투여 단독 치료 증례로서는 첫 번째 사례이다. 또한 본 연구는 『傷寒論』의 재해석을 목표로 하지 않았으며, 재현을 목표로 白虎湯을 사용한 증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단의 객관성과 재현성에 기여하고, 통일된 진단체계를 여러 의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한의학의 체계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白虎湯은 유명한 처방이고 많이 사용되었으나 눈과 어지럼증과 관련한 증례 보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傷寒論』 辨病診斷體系에서는 白虎湯을 이에 활용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白虎湯 원방으로도 충분히 많은 영역 확장이 가능할 것이다. 白虎湯은 기존에 清熱하는 처방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본 증례는 清熱을 포함하여 그에 속발되는 어지럼증을 치료한 증례로서 그 적용 범위를 보다 넓혔다. 清熱 효과라는 처방에 대한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清熱 효능이 환자의 주소증 자체가 아니라 주소증을 속발시키는 원인을 조절하도록 투여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병을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례이다. 이는 기존 한의학적 진단과 처방 사용에 대해 매우 다른 시각을 제공하며, 한의학적 진단의 가치를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후속 증례 보고들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사용된 용어 정의에 대한 일반화를 하기에는 그 증례 개수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裏 글자의 경우, 가족과의 불화라는 부분이 병을 일으키는 과정에 대해 좀 더 많은 증례를 통한 질적 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를 임상에서 지속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후속 증례 보고들이 필요하다.

## 결론

1. 어지럼증을 주소로 하는 환자를 厥陰病 350번 조문으로 진단하여 20일간 白虎湯을 투여한 결과 주소증이 호전되어 치료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傷寒論』 조문에 사용된 한자의 어원을 중심으로 증례를 분석한 결과, 滑, 撞, 裏 등에 대한 새로운 임상적 적용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 Reference

1. Yamada K. How did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Start. Seoul Publishing Company Science Books. 2002;155,170-171.
2. Choi WY, Lee SJ. Two Case Reports treated with Chijabackpi-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7;9(1):101-113.
3. Cho SH, Yun HJ, Lee SJ. A Conceptual study on Shanghanlun Jueyinbing :Based on 2 cases treated by Shanghanlun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7;9(1):1-20.
4. Lee SJ, Lim JE. A Diagnostic System and Clinical Application Based on Shanghanlun Six Meridian Patterns and Provisions. Seoul:Kmediacs publishing house. 2014:1-6.
5. Kim JY, Jeong SY, Park SM, Hwang DG, Kho YT. Oriental Medical Treatment Pattern of Korean Patients with Dizziness or Vertigo.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15;26(3):225-234.
6. Heo J. A Case Report of Dizziness treated by Guizhieryuebiyi-tang based on Shanghanlun provisions.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of Clinical Sanghan-Geumgwe. 2017;9(1):21-28.
7. Lee JH, Shin HS, Kim DH, Jo CH, Lim SM, An JJ, Jo HK, Kim YS, Seol IC, Yoo HR. Statistical Study in 70 Cases for Dizziness Patients on the Effect of Jaeumgeonbi-tang Gamibang.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and Pathology. 2010;24(1):171-176.
8. Oh JM, Eom TM, Choi KE, Heo JW, Kim HT, Jo HK, Yoo HR, Seol IC, Kim YS. Study of the Patients with Dizziness who visited the Korean Medicine Hospital.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and Pathology. 2015;29(5):378-385.
9. Lee SI. A Philological Research on the Way of Medical Study of ShangHanLun.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Medicine Society For The Herbal Formula Study. 2014;22(2):1-13.
10. Park KM, Choi SH. The comparative study of 『Sanghanron』 and 『hwangjenaegyong』 through historical study on 『Gangpyung-Sanghanron』 . J. Korean Medical Classics. 1995;9:263-300.
11. Moon KS.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Misinterpretations about Chinese Bronze Characters. Journal of regional culture research. 2013;12:181-218.
12. Park HJ, Kim JH, Yoo HR, Kim YS, Seol IC, Jo HK. A case of Patient with epigastralgia which appeared after Stroke Treated with Baekho-tang. Journal of Hachwa Medicine. 2013;21(2):133-138.
13. Kim JH, Kim MJ, Son HB, Bae HS, Park SS. A Case Study of a Patient with Atopic Dermatitis improved by Yangdokbaekho-tang.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13;25(4):414-424.
14. Lee HM, Park SH. A case of Chronic Sinusitis Patient Improved by Yangdokbackho-tang.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07;19(3):283-292.
15. Oh HJ, Hwang MW. A Clinical Case Report of Soyangin Patient with Peripheral Coldness.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2017;29(3):288-297.
16. Shin JW, Jang WS. A Case Report about The

- Effect of Gihwangbaekho-tang on The Delirium Caused by Post Acute Cerebral Infarction. Th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 2015;40(4):57-66.
17. Kim JA, Lee SJ. Shanghanlun Diagnostic System : Exploring Value as Narrative Medicine by Analyzing Cases. Journal of KMediACS. 2014;6(1):1-25.
18. Ha YS. The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origin. Seoul. 3-Publication. 2014;160.
19. Ha YS. The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origin. Seoul. 3-Publication. 2014;767.
20. Ha YS. The Dictionary of chinese character's origin. Seoul. 3-Publication. 2014;208.